

미디어와 현실

매킨타이어 · 스나이더 · 신기욱 저, 동아일보 국제부 역, 『서울주재 외국 특파원들이 본 두 개의 코리아』(한국과 미국, 2010).

신기욱 저, 송승하 역, 『하나의 동맹, 두 개의 렌즈: 새 시대의 한미관계』(한국과 미국, 2010).

이소정(서울대)

한국에게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 이러한 질문을 화두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주한미군 주둔을 둘러싸고 안보영역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이어지는가 하면,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반복되기도 하였다. 북한과 한미동맹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이슈 대결 및 대립구도는 한국의 정치사회적 균열로서 오랜 시간 이어져왔다. 한국에게 미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연적 관계의 한 축으로, 거의 모든 사안에 있어서 양국이 연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에게 한국은 어떤 존재인가?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앞선 질문을 역으로 던져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상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인가? 한미관계는 한국과 미국, 두 행위자의 상호 관계이다. 이는 일방적 관계만을 파악해서는 전체 관계를 구성해낼 수 없음을 의미한

다. 한국이 미국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함께,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양 측면을 모두 이해하여야만 진정한 한미관계의 전체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한미관계의 성공적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라 하겠다. 그리고 신기욱을 비롯하여 두 책의 저자들은 바로 이러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진정한 한미관계의 상을 그려보고자 한다. 특징적인 것은 분석의 핵심 도구로 ‘미디어’를 선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가 어떻게 현실을 담아내고 또 구성해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저자들은 한미관계의 숨겨진 동학과 정치적 의미를 찾아내고 미래의 한미관계를 그려보고자 한다.

신기욱 외 저자들은 그들의 책 『서울 주재 외국특파원들이 본 두 개의 코리아』¹⁾에서 미국의 주요 미디어 보도에서 드러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추적한다. 저자들은 1992~2003년 동안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의 한국 관련 보도를 분석한다. 또한 해외 언론사의 서울 특파원과 고위관리들의 취재 경험담 및 논의들도 주요하게 다룬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과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사이의 간격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두 개의 코리아』에 등장하는 여러 저자들은 미국의 언론이 한반도와 관련한 일련의 주요한 사건과 한국적 배경, 역사적 맥락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 특파원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단순하게 기록만 했지, 각 점들을 연결시키지는 못했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1999~2002년 미국 언론은 한미 관계에 대한 핵

1) 도널드 A. L. 매킨타이어, 대니얼 C. 스나이더, 신기욱 지음, 동아일보 국제부 옮김, 2010, 『서울 주재 외국특파원들이 본 두 개의 코리아』, 서울: 도서출판 한국과 미국. 이하 『두 개의 코리아』로 표기함.

심 이슈들을 보고했다. 하지만 사안이 갖고 있는 복잡성, 그리고 일반 독자들을 상대로 외교정책을 보도한다는 일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제대로 된 큰 그림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회고한다. 한반도의 정치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게 다루어진 데에는, 미국의 국익에 훨씬 민감한 다른 이슈가 발생하면서 한반도 이슈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된 까닭도 있었다. 또한, ‘은둔의 왕국’ 북한에 대한 제한적 접근과 한정적 정보로 인해 북한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제약받거나 대중의 관심에 따라 북한의 일부분만이 강조되어 보도되는 일도 흔히 발생하였다. 결국 미국 외교정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대한 미국 미디어의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러한 미국 미디어의 태도는 미국 워싱턴의 정책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더 나아가 신기욱은 『하나의 동맹, 두 개의 렌즈: 새 시대의 한미관계』²⁾에서 한국과 미국 양국의 미디어 분석을 통해 한미관계의 변화와 그 정치적 의의를 살펴본다. 신기욱은 한국의 조선일보와 한겨레, 그리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의 1992~2003년 동안의 한반도 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한미관계와 양국 미디어의 관계에서 키워드(key-words)는 “하나”와 “둘”, 즉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접근방식이 병존하는 것이다. 신기욱은 이에 대해 “미국 언론은 한미관계를 정책 이슈로 사고하지만, 한국 언론은 한국의 국가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미관계에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 언론은 한미관계를 정책 차원에서 생각하며, 따라서 한미동맹이나 북한 등에 대한 부정적 논조의 심화는 한미 양국 간

2) 신기욱 지음, 송승하 옮김, 2010, 『하나의 동맹, 두 개의 렌즈: 새 시대의 한미관계』, 서울: 도서출판 한국과미국. 이하 『하나의 동맹, 두 개의 렌즈』로 표기함.

의 특정 이슈에 대한 정책 차이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반면, 한국 언론은 한국의 국가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미관계에 접근하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국가 정체성을 재정의하려는 정체성의 정치가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기욱을 비롯한 저자들의 논의는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상호 인식의 차이와 태도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보도기사를 통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롭다. 특히 서울 주재 해외 특파원 및 한국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고위급 인사들의 사적인 경험과 분석을 함께 다루으로써, 미디어 보도의 기저에 있는 정치적 동학과 이해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미관계라는 ‘하나’의 대상을 바라보는 한국과 미국의 ‘두’ 시선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의 재미와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본 논의의 유용성과 설득력마저 흔들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정하고 말았다.

신기욱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미디어를 방법론적 타깃으로 선정하여 그들의 보도기사를 분석한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분석대상의 선정과 분류의 핵심(core)이라 할 수 있는 조작적 정의에 대해 침묵한다. 왜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주요 척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저자의 논의 어디에도 제시되지 않는다.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발행부수가 가장 많다’고 언급하면서 한겨레에 대해서는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하는 등, 저자 스스로도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에 대한 평가 기준 역시 모호하다. 신기욱은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가 다소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유력 보수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을 연구에 포함시킨다고 말

한다. 그러나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를 어떠한 연유에서 ‘진보’라는 동일한 이데올로기적 정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다.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정향은 보도경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저자가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기사의 논조와 수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왜 해당 미디어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해당 미디어 간 이데올로기적 차이는 어떠한 개념적/조작적 정의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있는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다.

이러한 문제는 저자가 중요한 기준으로 상정하고 있는 기사의 논조에 대한 코딩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우선 저자는 미국 뉴스 기사를 설명적 뉴스와 평가적 뉴스로 나누어 코딩하면서 “미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구분을 사용한다”는 말로 구분의 근거를 제시한다. 기사 어조에 대해서도 저자는 “기사에서 문제가 긍정적으로 다루어졌느냐, 부정적으로 다루어졌느냐를 기준으로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문단으로 나누며, 각 문단의 비율이 전체 문단의 몇 %를 차지하는가를 기준으로 기사들을 분류, 코딩하였다. 그렇다면,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한다”는 구분의 정의는 무엇인가? “긍정적/부정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인가? 기사 내용 속의 특정 단어나 어휘가 반복되는 횟수를 계산하는 것인가? 저자는 긍정/부정의 스케일(-2, -1, 0, 1, 2)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점수를 부과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 설령 저자 자신은 이와 관련하여 조작적 정의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독자들에게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태도는 여전히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분류의 근거에 대한 객관적 설득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기욱은 데이터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강조하지만, 분석대상의 분류와 개념적/조작적 정의에 대해서는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을 반복하는 오

류를 범하고 있다. 더욱이, 분류된 변수들이 방법론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통계적 검증과 증명은 저자의 논의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분석의 대부분을 기사의 수에 따른 꺾은 선 그래프가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비록 저자가 『하나의 동맹, 두 개의 렌즈』에서 데이터 및 방법론에 한 장을 할애하고 코딩 북을 첨부하는 시도를 하고는 있으나, 저자가 의도했던 방법론적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필요한 것은, 어떠한 변수를 어떠한 이름으로 코딩하였는가가 아니라, 코딩된 변수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와 그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본적 테스트조차 찾기 힘든 통계적 분석에 근거한 결론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방법론적 엄밀성과 신뢰성이 실종된 상황에서, 저자의 논의는 학문적 분석적 의의가 부재하는, 저널리즘적 주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수준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 설정 그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기욱 등은 한국과 미국의 미디어의 기사 수의 변동을 중심으로 한미관계의 변화 양상을 추적한다. 특정 시기 부정적 논조나 긍정적 논조의 기사가 얼마나 증감하였는가에 따라 미디어의 태도를 밝히고, 그로부터 한미관계를 대하는 한국과 미국의 접근방식을 설명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의 논의에서 결정적 독립변수라 할 수 있는 “기사의 수의 증감”만으로는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차별적 접근 방식’이라는 종속변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보수/진보 논쟁과 갈등이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의 균열구조를 반영하는 것일 수는 있으나, 두 일간지의 기사 수 자체가 한국의 정책결정자와 주요 정치인의 정치적 이해와 전략적 접근방식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여론의 향방과 지지 세력의 압력은

정부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그러나 미디어의 특정 논조의 기사가 증감한다는 것 자체가 한미관계에 대한 국가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결정지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미국 미디어의 기사 수가 증감하는 것이 곧바로 워싱턴의 핵심 정책결정자의 전략적 사고를 구성해낼 수는 없다. 오히려, 미디어의 기사 논조와 수가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접근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양국의 정책결정론자의 전략적 이해와 태도가 미디어의 보도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디어의 보도 행태, 기사 수의 변동을 근거로 한미의 전략적 패러다임과 태도를 유추해내는 저자의 인과관계는 인과적 논리가 불충분한, 반쪽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여러 이유들로 인해 저자의 논의를 ‘쓸모없는 것’으로 폄하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방법론적 오류와 인과적 설명의 한계로 인해 저자의 논의가 일부 타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기욱은 향후 연구자들이 유념해야 할 중요한 논점을 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미관계의 다양한 측면들을 구분하여 사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기욱은 미국에 대한 견해와 한미동맹에 대한 견해를 등치시키는 접근을 경계하면서, 한미관계, 한미동맹, 주한미군 주둔 등을 구분하고 있다. 여러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한국의 반미주의와 관련하여 미국에 대한 반감과 한미동맹에 대한 반감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신기욱은 둘을 서로 구분해서 다룰 것을 주문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군사, 경제, 무역, 문화 등의 여러 분야를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기욱의 이러한 논의는 한미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한다. 실제 미디어의 보도나 대중의 태도를 살펴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하면서도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미 FTA를 찬성할 수 있으며, 한미동맹의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지나친 강경정책은 경계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보나 보수, 또는 친미나 반미를 일차원적으로 정의내림으로써 한미관계의 대결구도만을 부각시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신기욱의 지적처럼, 한미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한미동맹에서 나타나고 있는 긴장상태를 보다 잘 이해하고 한국이 진정 갖추어야 할 전략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볼 수 있는 것이다.

한미관계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한국에게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고려 대상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한미관계를 분석하고 사고하려는 시도는 더없이 반가운 작업이다. 신기욱을 비롯한 저자들의 논의는 미디어의 실제 보도에 근거한 모델을 고민하고, 현장을 직접 경험한 행위자들의 깊이 있는 분석을 논의에 접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즐거운 연구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한미관계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인식 및 접근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두 개의 시선’에 대한 전략적 이해의 필요성을 역설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방법론적 한계와 불분명한 인과관계 구축으로 인해 학문적 설득력이 부족한, 반쪽짜리 연구에 그치고 마는 아쉬움을 주기도 하였다. 하여, 향후 한미관계에 대한 미디어 연구 및 실제 사례분석과 관련하여 방법론적으로 한층 보강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저자가 진정으로 목표했던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맞설 한미동맹”의 상을 보여줄 것이다. 바야흐로 한국과 미국의 ‘두’ 시선에 대한 통찰을 통해 ‘하나’의 성공적인 한미관계를 맞이할 때이다.